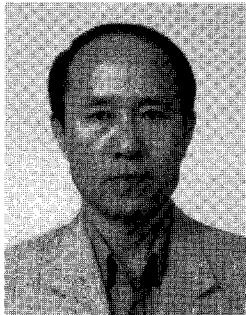


1. 2002년 양돈 산업을 돌아보며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수출이 중단된 이후 정부당국과 양돈 관련기관, 양돈 농가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으로 2001년 9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당초 예상보다 8개월 앞당겨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여 대일 수출 재개를 통한 양돈산업 활성화가 눈앞에 보이며,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듯 하였다. 예전부터 회자돼오던 “양돈산업은 질병과의 전쟁 극복여부가 관건이다.”라는 문구가 재확인되었던 2002년도 아니었던가? 2002년 봄, 구제역 재발, 방역, 살처분 등으로 재차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던 중, 돈콜레라가 재발됨에 따라 또 다른 어



정규성 소장
축산물유통연구소

유통 전문가가 본-

2003년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전망

려움이 가중되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재부각시키는 한해로 마무리되는 듯하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에 크게 우려되던 양돈가격 하락이 다행스런 국면으로 마무리됨이 그 중 다행이라고 자위하며,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새해가 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야겠다.

2. 2003년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가. 돼지고기 수급전망

연초 2002년도 돼지고기 수급동향은 공급면에서 2001년도 대비 3.7% 정도 증가한 907천톤으로 추정하였고, 공급내역을 보면 국내 생산량은 2001년 대비 4.3% 증가한 765톤, 수입물량은 2001년의 102천톤 대비 10% 정도 증가한 112천톤으로 예상하였으며, 국내 수요는 총 880천톤으로 전년대비 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중 국내소비는 2001년 대비 2.8%

큰 흐름은 예년과 같이 1/4분기 반등보합, 2/4분기 오름세, 3/4분기 내림세, 4/4분기 내림세에서 연말 회복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 예상되며, 1/4분기에는 2,500~2,700원대, 2/4분기에는 2,800~3,000원대, 3/4분기 이후는 2,000~2,500원대로 큰 폭의 내림,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2002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100~200원 정도 낮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

증가한 830천톤 수준으로 예상,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1년의 16.9kg에서 2.3% 정도 증가한 17.3kg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1990년도의 11.8kg 대비 거의 50%정도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돼지고기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반영하는 듯 하다.

전체 육류소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의 점유 비중이 2002년도에는 전체 육류 소비량의 51% 수준으로 아직도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추이로는 점유율이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돈육소비 추이와 타육류간의 점유 비중 흐름에 관심을 모아야 할 듯 하다.

2002년도의 추정치를 감안하여 2003년도의 돼지고기 수급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2003년도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예상치, 수입물량 흐름, 국내 소비예측, 수출시장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돼지고기 수급 흐름은 2002년도 대비 특별한 변화요인을 찾기보다 2003년도의 시중 경기흐름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

2002년도의 돼지고기 수급통계가 정확히 수치화 되지 않았으나 공급 면에서는 국내 생산량은 770천톤, 수입물량은 112천톤으로 2001년

이월 물량 30천여톤을 합산하면 총 공급물량은 912천여 톤으로 추정되어 2001년도 대비 국내 생산량이 4% 정도 증가하였고, 수입물량은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공급물량은 4% 정도 증가한 듯하며, 수요 면에서는 국내 소비는 830천톤, 수출은 20천톤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3년도 이월 물량은 62천두 수준으로 추정케 한다.

2003년도의 돼지고기 수급상 가장 큰 관점은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으로 2002년도에 사상 최대인 900만두를 돌파한 여세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급물량 증가로 나타날지 하는 점일 것이다.

사육두수 추이를 감안할 때 2003년도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2년도의 770천 톤 대비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아 내년도에는 790천 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물량은 재반 여건상 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120천톤 수준이 예상된다.

수요는 내년도의 경기 흐름이 가장 큰 변수이나 경기예측 및 소비추이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나 불경기에는 돼지고기 소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 흐름을 보이는 바 2002년도 수

준보다는 작으나 2% 정도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여 845천톤으로 추정되며, 수출은 여러 변수가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나 금년의 20천톤 내외 보다 2배 증가한 40천톤 수준으로 늘 것으로 기대케 하고 있다. 물론 질병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면 더욱 큰 수출물량 증가가 기대되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지난친 큰 증가는 기대하지 못할 듯 하다.

나. 돼지 가격 전망

2002년도는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세, 구제역, 돈콜레라 발생, 수출재개 지연 등의 돼지가격 형성에 악재로 반영되는 요인들이 작용되며 하반기에는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11월의 전국 도매시장 박피 비육돈의 평균 경락가격이 2,300~2,400원대로 마무리되어 시중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 반등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돈 콜레라 발생에 따른 물량 수급 차질과 비수기를 감안한 생산물량 조절,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대체 효과 등이 중복 작용된 결과로 판단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총 사육두수 추정에 대한 의구심까지 불려오는 출하물량 흐름이 더욱 관심사였던 것 같다.

2002년도 1~3월의 2,800원대, 4~6월의 3,100~3,200원대가 9~10월에는 2,000원대로 크게 내렸으나, 당초 예상대로 11월에는 2,000원대 이하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11월의 큰 폭 반등은 더욱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3년도 돼지 거래가격 전망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수급 양면에 상당한 변수가 도사리



▲사육두수 추이를 감안할 때 2003년도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2년도의 770천톤 대비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아 내년도에는 790천 톤 이상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 있으나, 공급 면에서는 국내 생산량 추이와 수요 면에서는 경기 및 소비추이와 수출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반적인 자료를 감안할 때 사육두수 증가 영향이 공급량 증가로 반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소비와의 균형, 계절적인 가격 사이클과 출하물량 조절 등도 영향력이 작지 않을 듯 하다.

큰 흐름은 예년과 같이 1/4분기 반등보합, 2/4분기 오름세, 3/4분기 내림세, 4/4분기 내림세에서 연말 회복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 예상되며, 1/4분기에는 2,500~2,700원대, 2/4분기에는 2,800~3,000원 대, 3/4분기 이후는 2,000~2,500원대로 큰 폭의 내림,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2002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100~200원 정도 낮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

질병 영향과 수출재개 여부, 시중 경기 흐름 등 돈가 흐름에 결정적인 변화를 줄 요인이 상존하는 바 더욱 세밀한 예상은 무리일 듯 하며, 물량 수급과 시중 경기추이를 크게 감안할 때 2003년도 돈가에 대한 큰 기대는 무리일 듯 하다. **양동**